

제15회 산업보건학술제
산업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14:0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관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 주최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김형동 국회의원실



대한산업보건협회 제15회 산업보건학술제 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 중요성 강조

글 김지명 안전신문 기자 사진 김재이

대한산업보건협회 제15회 산업보건학술제가 지난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제에서는 안전 분야에 비해 미흡한 보건 분야 위험성평가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효과적인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보건 분야의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논의

대한산업보건협회 제15회 산업보건학술제는 ‘산업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김형동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행사로, 이날 학술제에는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정지연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등을 포함해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인사말과 축사가, 2부에서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박영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개회사에서 “보건 분야의 위험성평가는 체계나 데이터 등의 정보가 미흡한 실정인데다가 보건 분야에의 산재는 급식노동자 폐암 사망과 같은 사례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정부가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놔도나 보건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며 “직업성질병에 의한 사망 및 재해예방을 위해 보건 분야의 다양한 위험성평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선 정책 제1 목적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오늘 학술제를 통해 나온 얘기들을 잘 듣고 예산 편성 등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보건 분야까지 위험성평가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방안,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IoT 활용 방안, 사회적·자연적으로 바뀌는 산업보건 문제 양상 대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지연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은 “위험성평가의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사업장에서 스스로 자기의 수준에 맞게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직업성질환 예방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 방향 모색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유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업성질환 예방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 방향’을 주제로 보건 분야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위험성평가 모델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근로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노동자가 알기 쉽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예방정보 문해력 높이기 ▲쉽게 공유하기 ▲지식에 공감하게 하기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준원 송실대 안전융합대학원 교수는 위험성평가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에 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CHARM이라는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이 있기는 하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사용하는 비율이 적을 정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며 사용하기 쉬운 보건 분야의 위험성평가 도구 개발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실장을 좌장으로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 조재현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회장, 김근한 노무법인 청인 대표, 김효준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지원본부장, 최성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이 참여해 위험성평가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보건 분야 위험성평가에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이 같은 사항이 실행되기 위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